
청소년 예비 농업인력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이 화 중

목 차

제1장 서론	1
제2장 이론적 논의	2
제1절 농업인력 육성의 개념과 배경	2
1. 농업인력 육성의 개념	2
2. 농업인력 육성의 배경	4
제2절 농업인력 육성의 체계 현황	5
1. 전반적인 농업인력 육성 정책	5
2. 농업인력 육성 체계	5
제3장 청소년 농업인력의 육성현황 및 문제점	8
제1절 청소년 농업인력의 육성현황	8
1. 농업계 고등학교	8
2. 농업계 전문대학	8
3. 농학계 4년제 대학교	8
4. 학생 4-H회	11
제2절 청소년 예비 농업인력 육성의 문제점	11
1. 청소년 예비 농업인력 확보의 문제점	11
2. 청소년 예비 농업인력 양성의 문제점	12
가. 농업계 학교기관의 특성화 교육 미흡	12
나. 농업계 학교기관과 농업인력 양성관련 기관간 연계 부족	12
다. 농업 교육훈련 교사의 전문성 부족	13
라. 농업계 학교기관의 교육여건 미흡	13
3. 청소년 예비 농업인력 유입의 문제점	13
가. 후계농업인 선정의 문제점	13
나. 청소년 예비 농업인력을 위한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문제점	15
제4장 청소년 농업인력 육성의 효율적 방안	16
제1절 청소년 예비 농업인력의 확보 방안	16
1. 농업계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16
2. 농업 유망직종 및 자격증 개발을 통한 확보	16
3. 학교 4-H회 활성화	17
제2절 청소년 예비 농업인력의 양성 방안	17
1. 농업계 학교 특성화 통한 현장 경험교육 강화	17
2. 농업계 학교간과 농업인력 양성관련 기관의 연계 협력 증진	18
3. 농업 교육훈련 교사들의 전문성 강화와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개발	18
제3절 청소년 예비 농업인력의 유입 방안	19
1. 취농창업 후계농업인과 산업기능요원제도의 개선 방안	19
2. 청소년들의 농업관련 벤처기업 창업지원	20
제5장 결론	21

표 차 례

<표 1> 농업인력 관련 용어에 대한 개념 종합	2
<표 2> 연도별 농가인구 현황	4
<표-3> 시대별 농업인력 육성정책	5
<표 4> 농업계 전문대학별 입학 정원의 현황	9
<표 5> 농학계 4년제 대학교별 입학정원	10
<표 6> 우리나라 4-H회의 조직현황	11
<표 7> 연령별 농가인구	12
<표 8> 후계농업인 제도의 개요	14

그 립 차 례

<그림 1> 우리나라 농업인력 육성 체계	6
------------------------------	---

요약

우리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농업연구 개발을 바탕으로 농업 정책 및 방안들이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강구되어야 하지만, 현재 산업화로 인한 도시로의 이농현상으로 농업인력의 급격한 감소와 노령화로 아무리 좋은 농업정책과 지원체계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이를 따라갈 우수한 농업인력들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는 그 성과에 있어 큰 기대효과를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 가장 최우선으로 중심이 되어야 할 농업인력 분야 중, 앞으로 우리 농업의 희망인 청소년 예비 농업인력 육성방안에 그 중점을 두고 살펴보는 것으로, 현재 우리 농업인력의 육성 체계와 현황을 통해 청소년 농업인력 육성의 확보, 양성, 유입이라는 세가지 큰 틀을 토대로 문제점 분석과 그에 따른 효율적인 방안으로 농업계 학생 장학금 지원의 확대, 농업 유망직종 및 자격증 개발, 학교 4-H 활성화를 통한 농업인력 확보방안과 농업계 학교 특성화로 현장 경험교육 강화, 농업계 학교간·관련 기관간의 연계협력,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양성방안을 마지막으로 후계농업인 및 산업기능요원제도의 개선, 농업관련 벤처기업 창원지원을 통한 유입방안을 끝으로 청소년 예비 농업인력 육성에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고 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논문이다.

제1장 서 론

우리나라는 반세기 동안 급격한 산업화의 물결을 타고 빠른 성장을 하여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탈바꿈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발전과 경쟁력에 있어서 그동안 농업중심 국가보다는 산업중심의 국가 형태가 이상형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산업 선진국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세계가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면서 농업분야가 중요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따른 각 국의 농업 정책 및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맞추어 농업부문의 중요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분석을 통해 대책방안을 계획하고 이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화로 인한 도시로의 이농현상으로 농업인력의 급속한 감소와 노령화로 농업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킬 농업인들이 부족한 현 실정이다. 이러한 시대적인 현상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농업인력의

육성의 필요성과 농업인력의 확보, 양성, 유입하는 것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시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농업연구 개발을 바탕으로 농업정책 및 방안들이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강구되어야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의 청소년 예비 농업인력을 어떤 방식과 프로그램으로 육성을 하느냐가 큰 숙제이다. 아무리 좋은 농업정책과 지원체계가 연구개발 되어 시행된다 하더라도 이를 따라갈 우수한 농업인력이 확보되지 않거나 양성되지 못한다면 그 농업정책과 지원체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농업인력 이외에도 우수한 청소년 예비 농업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확보하여 이들을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각 영역별로 농업발전을 위한 여러 일반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이를 따라가고 시행할 앞으로의 진보적인 농업 주체인 청소년 예비 농업인력 육성에 대해 관심과 중요성에 크게 지각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그 추진사업에 있어서도 효율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농업발전을 위해 가장 최우선으로 중심이 되어야 할 농업인력 분야 중, 앞으로 우리 농업의 희망인 청소년 예비 농업인력 육성방안에 그 중점을 두고 살펴보는 것으로, 현재 우리 농업인력의 육성 체계와 현황을 통해 청소년 농업인력 육성의 확보, 양성, 유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청소년 예비 농업인력 육성에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고 이를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농업인력 육성의 개념과 배경

1. 농업인력 육성의 개념

농촌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농업을 1차 산업인 생산농업(production agriculture, farming)에 국한하고 있고, 또한 지금까지의 정부의 농업인력 정책도 주로 농업생산분야의 농업인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제까지 농업인력과 관련하여 쓰여지고 있는 용어들도 영농인력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러한 용어들을 신규농업인력, 전문농업인력, 기타로 구분하여 각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면 < 표 1>과 같다.¹⁾

<표 1> 농업인력 관련 용어에 대한 개념 종합

농업인력관련 용어		개 념 규 정
신규 농업인력	신규 후계농업인	현재 40세 미만인 자 중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와 특별·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후계농업인 육성 대상자로 선발·확정한 자(농림사업 시행지침서)
	취농창업 후계농업인	현재 35세 미만인 자 중 농업계 학교 졸업(졸업예정자 포함) 직후 영농 승계를 원하는 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중인 자 중에서 영농 승계를 원하는 자와 타산업분야 종사자 또는 농업분야 이외의 학교 졸업자 중 농촌 정착을 원하거나 농촌에 정착한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특별·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후계농업인 육성대상자로 선발·확정한 자(농림부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산업기능 요원 후계농업인	군소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역 입영 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중 영농정착 의욕이 높은 자를 농업에 종사토록 함으로서 농촌인력난 해소 및 농업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농업분야 산업기능요원(농림부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신규창업농	농업교육훈련을 이수한 후에 최초로 영농에 종사하게 되는 농업인으로서, 주로 영농 시작을 창업의 개념으로 접근한 용어(농정발전기획단)
	귀농자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분야에서 농촌으로 귀향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인력

1) 정철영, 「21세기 농업인력 육성」, 서울대학교, 2002

전문농업인력	전업농	자립을 위해 타 산업종사자에 버금가는 소득수준을 달성해야 하는 동시에 농업경영에 참여하는 노동력이 최대한 효율을 올릴 수 있는 전문화·규모화·현대화된 가족 경영체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협력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농업인 5인 이상이 조합을 구성한 형태(농업·농촌기본법)
		농업회사법인	기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하거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농업·농촌기본법)
	선도농업경영체	농업을 선도해 나갈 전업농 내지 농업법인이며, 경영규모, 생산기술, 경영법, 시설·장비, 소득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농업경영체(농림사업시행지침서)	
	신지식농업인	학력과 전문자격증에 관계없이 새로운 발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상을 개선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고 고능률을 실현하여 높은 소득을 올리고 농업·농촌의 변화를 주도하는 농업인(농림부)	
기타	(일반)농업인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등에 해당하는 자(농업·농촌기본법)	
	농가인구	농가에서 3개월 이상 살았거나 3개월을 살지 않았어도 3개월 이상 같이 살게 될 가구원(통계청)	
	농업숙련종사자	정기적으로 전답작물, 과수작물을 재배·수확하고, 야생과일 및 식물을 채취하거나, 동물을 번식·사육하여 축산물을 생산하고 농경지를 경작, 보존 및 개발하는데 필요한 활동을 기획하여 포유류, 조류 및 파충류를 수렵하는 자(통계청)	
	농업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간단한 수공구를 사용하거나 상당한 육체적 노동으로 단순하고 일상적인 영농과 관련된 일을 수행하는 자(통계청)	

농업인력 육성의 개념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기존 농업인 들에 대한 교육훈련과 예비농업인 들을 위한 농업기술과 지식을 교육시켜 우수한 농업인력을 배출하는 형태의 개념이다. 그러나 최근 많은 선행연구 자료에서는 농업인력 육성의 개념에 대해서 농업인을 배출 및 양성하기 위한 제한적인 형태에만 두지를 얹고 보다 폭넓은 개념으로서 농업인력의 확보 및 양성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앞으로 우리 농업인력의 육성에 있어 기존의 농업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만의 농업인력 육성에 성공적인 결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농업인력 육성은 기존 농업교육과 훈련 프로그램들도 중요시되지만

우선은 이런 프로그램을 받을 농업인력들을 확보하고 양성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며, 또한 기존 농업인력 육성의 개념에서도 점차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농업인력 육성의 개념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농업인력의 확보와 양성, 유입에 중점을 두고 청소년 농업인력의 육성방안에 대해 새롭게 관심을 가지고 모색할 때이다.

2. 농업인력 육성의 배경

농림부를 비롯한 농업관련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 및 농촌의 인력개발 사업이 우리나라의 농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미래세대의 육성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라는 인식을 갈수록 더욱 실감하게 될 것으로 확신하다. 이에 대한 근거로서,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1970년대 이후 급격한 이농에 의한 농가인구의 감소, 농업취업자의 감소, 영농승계인력의 급감에 따라 농촌이 활력을 상실하고 농촌사회의 공동화 우려가 제기되었다.

<표 2> 연도별 농가인구 현황

(단위: 천명)

구 분	농 가 인 구			비 고
	총 인 구	남 자	여 성	
1970	14,422	7,164	7,258	
1980	10,827	5,415	5,412	
1990	6,661	3,279	3,382	
2000	4,031	1,971	2,060	
2003	3,530	1,715	1,815	

자 료: 농림부(2004)

이에 따라 우수한 정예 농업인력의 확보와 농촌발전을 주도할 농업인력 육성 필요성이 대두되어, 1981년 농업인후계자 제도를 시초로 국가의 정책자금 지원에 의한 농업 인력육성이 실시되었다.²⁾

2) 오해섭, 「농촌청소년의 농업후계인력 육성지원 및 교육을 위한 정책 방향」, 서울대학교, 2002.

제2절 농업인력 육성의 체계 현황

1. 전반적인 농업인력 육성 정책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으로 처음 대두된 것은 1981년 시작된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³⁾ 이 후, 농업인력 육성정책은 농업인 후계자 제도가 실시된 이래 1990년부터 오늘날까지는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농업법인경영체육성, 전업농육성 및 예비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표-3>과 같다.

<표-3> 시대별 농업인력 육성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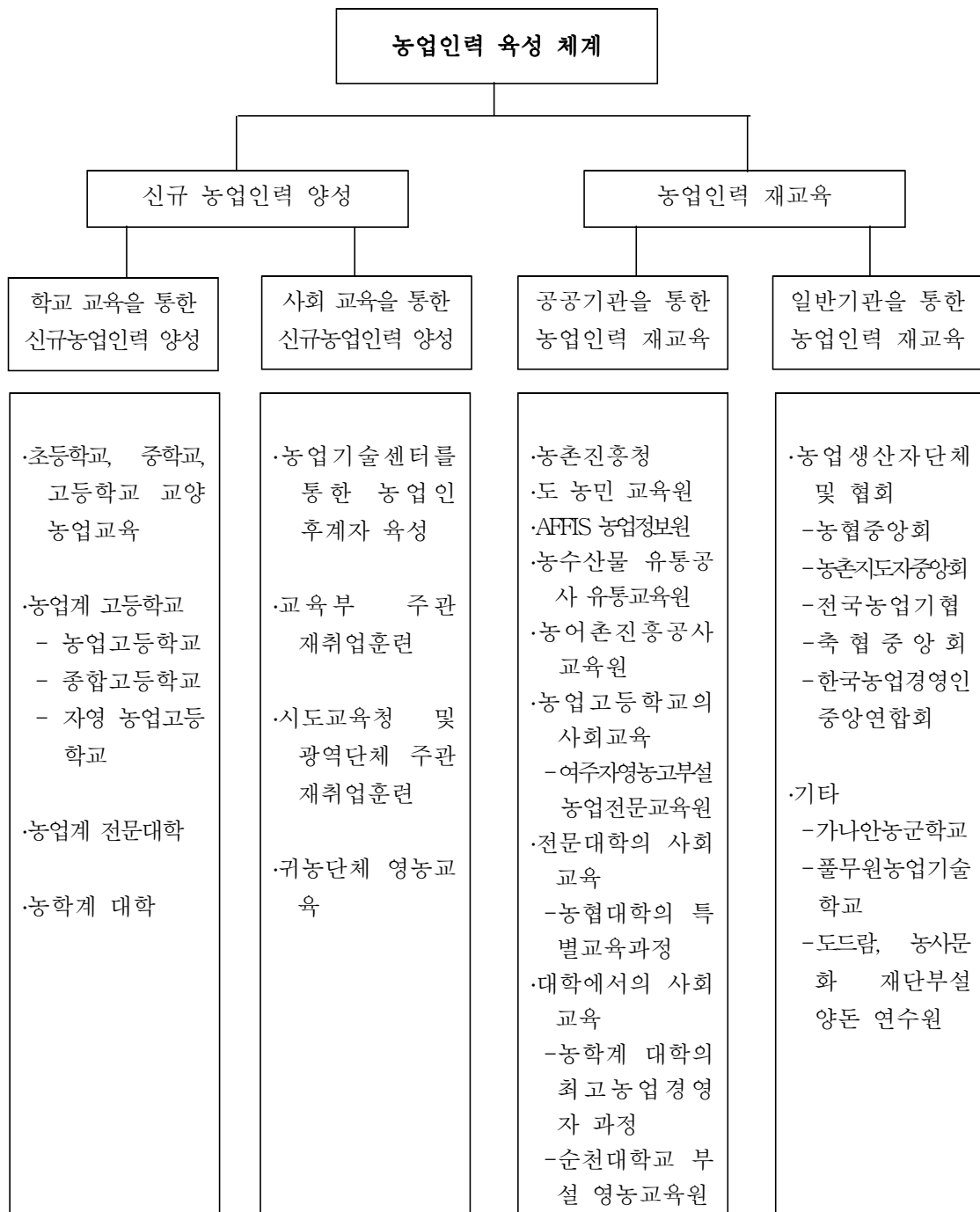
연 도	내 용	농업인력 육성정책
1978년	농어민 후계자 육성기금법 제정	새마을청소년을 중심으로 지원하던 영농후계자 육성 자금을 통합하여 농어민후계자육성 사업 추진
1990년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농업법인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과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이 농어촌발전기금으로 통합되는 계기 제공
1991년	농어촌구조 개선대책	·예비후계자(36세 ~ 40세)제도 도입, 우수후계자→전업농→선도농가 지원체계 수립
1993년	신농정 5개년 계획	·농업계 고등학교→후계인력육성의 중심학교로 육성 ·국립농과대학→기능별특성화대학 지원계획 수립 ·농과대학 농업전문경영자과정 설치 및 법적근거 마련
1999년	농업·농촌기본법	·농업인후계자→후계농업인 명칭변경 ·예비후계자 제도의 폐지 ·원예, 특작, 축산 전업농→농업경영종합자금으로 통합 ·개별경영체는 후계자, 전업농 성장 육성 ·법인경영체는 농기업 중심체로 육성 ·농업계 학교교육의 내실화 통한 후계인력 육성체계 확립
2001년	취농 창업 후계농업인 제도	·후계농업인제도→신규후계농업인 / 취농창업후계농업인으로 구분 및 지원

2. 농업인력 육성 체계

3) 윤호섭, 「농업인력 육성의 현황과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1993.

현행 우리나라 농업인력 육성 체계는 <그림 1>에서와 같이 신규 농업인력 양성과 농업인력 재교육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의 농업인력 육성 체계는 신규 농업인력 양성 체계와 농업인력 재교육 체계가 서로 보완하면서 완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1> 우리나라 농업인력 육성 체계



신규 농업인력 양성은 학교 교육을 통한 신규 농업인력 양성과 사회교육을 통한 신규 농업인력 양성으로 나누어진다. 학교 교육을 통한 신규 농업인력 양성은 잠재적인 신규 농업인력 양성인 교양 농업교육과 직전 교육의 성격을 띤 직업 농업교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앞으로의 청소년 농업인력 육성과 관련이 깊은 것이다.

교양 농업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농업과 관련된 모든 교육으로서 이는 농업에 종사할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농업에 대한 좋은 인상과 태도를 양성함으로써 장차 직업 농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며, 또한 이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직접적인 농업인력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농업행정이나 농업관련 분야에 나아가거나 다른 분야에 종사하더라도 농업을 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인력이 되도록 하는 교육이다. 이 교육도 대단히 중요한 교육으로서 농업 좋아하는 긍정적인 태도 형성에 큰 역할을 한다. 이는 장차 농업인력이 될 수 있는 밑받침이 되는 것이다. 또한, 직업 농업교육은 농업계 고등학교, 농업계 전문대학 등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사회교육을 통한 신규 농업인력 양성은 농촌지도 사업을 통한 농업인 후계자 육성, 학교 교육을 통한 재취업 훈련, 귀농 단체의 영농 교육 등이 있으나 핵심적인 것은 농촌지도사업을 통한 농업인 후계자 육성 사업이다.

농업인력 재교육은 공공기관을 통한 농업인력 재교육과 일반 기관을 통한 농업 인력 재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공공기관을 통한 농업인력 재교육은 농촌진흥청과 지방의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농업인 교육사업, 농업고등학교 사회교육, 전문대학의 사회교육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일반기관을 통한 농업인력 재교육 체계 속에는 농업 협동조합과 같은 단체의 농업인 지도 사업, 가나안 농군학교와 같은 사회교육기관에서의 농업인 재교육사업 등이 여기에 속한다.⁴⁾

4) 이용환외5명, 「21C 신지식농업인화 방안 및 교육·훈련 연구」, 서울대학교, 2000.

제3장 청소년 농업인력의 육성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청소년 농업인력의 육성현황

1. 농업계 고등학교

농업계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업관련직에 종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길러 산업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업 및 농촌문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중견자립영농인과 농업관계직 취업자를 육성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⁵⁾

농업계 고등학교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째로 농업관련 학과만 설치한 순수 농업고등학교와 부분적으로 농업관련 학과를 설치한 비순수 농업고등학교⁶⁾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 수와 학급 수는 1980년을 기점으로 계속 감소하여 2004년도에는 순수농업 고등학교의 학교 수는 24개교, 농업계열학과 설치고교는 77개교로 1970년에의 총 200개교 비하여 상당수가 감소하였다.

또한 영농후계인력 육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자영농업 고등학교(또는 자영농과)를 들 수 있다. 자영농과는 농업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농업경영에 관한 실무능력을 길러 복합영농을 할 수 있는 중견 자립영농인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⁷⁾

2. 농업계 전문대학

농업계 전문대학은 2004년 현재 농업계열 학과를 설치한 농업계 전문대학은 국립으로 설립된 한국농업전문대학과 사립인 연암축산원예대학을 비롯하여 총 13개교이며, 전문대학에 설치된 농업계열학과는 축산과와 원예과를 중심으로 38개 학과가 설치되어 있다.<표 4>

3. 농학계 4년제 대학교

농학계 4년제 대학교는 종합대학의 형태, 단과대학의 형태, 단과대학의 학부 형태, 그 밖의 다른 성격의 대학 속에 농학계 학과나 학부가 있는 형태 등 다양한

5) 정철영, 「농업인력의 육성 실태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1999.

6) 농업계열학과 설치고교.

7) 정철영, 「농업인력의 육성 실태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1999.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농학계 4년제 대학교에 대한 규정은 농업계 전문대학에서와 같이 농업 또는 농학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그 범위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농학계 관련학과에 속하는 14개의 관련학문을 기초로 하여 이들 학과를 중심으로 구성된 단과대학을 농학계 대학으로 정의하며,⁸⁾ 농학계 4년제 대학교별 현황은 <표 5>와 같다.

<표 4> 농업계 전문대학별 입학 정원의 현황

설립 주체	지역	학교명	입학 정원	농업계열 설치학과	비고
국립	경기	한국농업전문학교	219명	작물계열: 식량작물학과(54), 특수작물학과(35) 원예계열: 채소학과(29), 과수학과(29), 화훼학과(38) 축산계열: 축산학과(54)	종합 순수 전문대학
	전북	익산대학	360명	농업계열: 농업경영학과(40), 동물자원학과(40), 환경원예학과(40), 식량환경학과(40), 녹지조경학과(40) 공업계열: 식품공업과(80), 목재산업공학과(40), 생명공학과(40)	
사립	경기	농협대학	100명	협동조합계열(100): 금융보험전공, 유통경제전공	
		신구대학	240명	농업계열: 도시원예과(80), 조경과(80), 자원동 물산업과(80)	
		삼육의명대학	80명	농업계열: 동물자원과(80)	
	강원	상지영서대학	80명	농업계열: 동물과학과(80)	
	대전	우송정보대학	160명	동물과학과(80), 원예조경과(80)	
	대구	계명문화대학	160명	자연과학계열: 원예조경과(80), 동물산업과(80)	
	경북	구미1대학	80명	환경원예과학과(80)	
	경남	경남정보대학	120명	환경조경과(120)	
	전남	전남과학대학	40명	농업계열: 화훼원예과(40)	
	충남	연암축산원예대학	520명	축산학부: 축산과(80), 낙농한우과(40), 사료자 원과(40), 식육유통과(40) 원예학부: 원예과(80), 생물배양과(80), 관광농업 과(40), 화훼장식과(40), 조경과(80)	종합 순수 전문대학
	제주	제주산업정보대학	60명	생명자원계열(60)	
계		13개교	2,219명	총 학과 수: 38개 학과(전공)	

자 료: 교육인적자원부, 전국 전문대학 입학정원 현황(2004)

8) 정철영, 「21세기 농업인력 육성」, 서울대학교, 2002.

<표 5> 농학계 4년제 대학교별 입학정원

(단위: 개교, 명)

지역	국립			사립			계
	대학명칭	모집단위	모집인원	대학명칭	모집단위	모집인원	
서울 · 경기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9	416	건국대 농촌생명과학대학	10	380	농학계대학: 10개 학과: 49개 모집인원: 2,283명
	서울대 수의과대학	1	50	건국대 수의과대학	1	70	
	한경대 농학부	8	300	경희대(수원) 생명과학부	5	200	
				고려대 생명환경과학대학	5	297	
				국민대 산림과학대학	2	100	
				동국대 생명자원과학대학	4	150	
				중앙대(안성) 산업과학대학	4	320	
강원	강릉대 생명과학대학	3	80	상지대 생명자원과학대학	6	250	농학계대학: 6개 학과: 29개 모집인원: 1,037명
	강원대 농업생명과학대학	9	315				
	강원대 산림과학대학	5	166				
	강원대 동물자원과학대학	5	186				
	강원대 수의과학대학	1	40				
대전 · 충남	공주대 산업과학대학	12	420	단국대 생명자원과학부	4	160	농학계대학: 5개 학과: 34개 모집인원: 1,290명
	충남대 농과대학	12	470	중부대 자연자원학부	5	180	
	충남대 수의과대학	1	60				
충북	충북대 농과대학	12	470	건국대(충주) 자연과학대학	6	310	농학계대학: 3개 학과: 19개 모집인원: 820명
	충북대 수의과대학	1	40				
대구 · 경북	경북대 농과대학	13	384	대구대 자연자원대학	6	250	농학계대학: 6개 학과: 38개 모집인원: 1,435명
	경북대 수의과대학	1	60	효성카톨릭대 자연대학	5	261	
	상주산업대 농학계	5	150	영남대 자연자원대학	8	330	
부산 · 경남	경상대 농과대학	12	445	동아대 생명자원과학대학	4	200	농학계대학: 5개 학과: 27개 모집인원: 1,015명
	경상대 수의과대학	1					
	밀양산업대 농학부	4	80				
	진부산업대 농학부	6	290				
광주 · 전남	순천대 농과대학	10	345				농학계대학: 3개 학과: 23개 모집인원: 909명
	전남대 농과대학	12	514				
	전남대 수의과대학	1	50				
전북	전북대 농과대학	12	470	우석대 생명자원과학부	2	70	농학계대학: 4개 학과: 19개 모집인원: 700명
	전북대 수의과대학	1	0	원광대 생명자원과학대학	4	160	
제주	제주대 농학대학	5	200				농학계대학: 2개 학과: 6개 모집인원: 240명
	제주대 수의과대학	1	40				
계	16개 대학교 27개 농학계 대학	163	6,041	15개 대학교 17개 농학계 대학	81	3,698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전국 농학계 4년제 대학교 입학정원 현황(2004)

4. 학생 4-H회

현재 우리나라 농업인력의 약 80%를 뒷받침하고 있는 인력은 4-H회원 출신으로, 청소년 농업인력 확보차원에서 4-H회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⁹⁾ 이러한 4-H회는 크게 영농 4-H회, 학생 4-H회, 일반4-H회로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 농촌발전에 있어 앞으로의 기대를 해야 할 젊은 예비 농업인력들인 청소년들이 적극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좋은 전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그 조직현황은 <표 6>와 같다.

<표 6> 우리나라 4-H회의 조직현황

구 분	계	영농4-H회	학생4-H회	일반4-H회
조 직 수	2,493개회	1,182	1,228	83
회 원 수	61,857 명	15,696(25.4%)	44,439(71.8%)	1,722(2.8%)

자 료 : 한국 4-H회 본부(2002)¹⁰⁾

우리나라 4-H회의 조직현황은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조직 수는 영농4-H 1,182개회, 학생4-H 1,228개회, 일반4-H 83개회 등 총 2,493개회이며, 회원 수는 영농4-H 25.4%, 학생4-H 71.8%, 일반4-H 2.8%로 나타나 있다. 특히, 학생 4-H회는 그 조직 수나 회원 수에도 다른 4-H회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예비 농촌인력으로서 좋은 본보기가 되지만, 4-H회의 소속 학생들이 모두 농업을 한다는 생각은 힘들기에 너무 치우친 낙관전망은 기대하기 이르다.

제2절 청소년 예비 농업인력 육성의 문제점

1. 청소년 예비 농업인력 확보의 문제점

최근 농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더욱이 학령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어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농업계 고등학교로 확보하기란 더더욱 힘들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농업계 전문대학이나 농학계 4년제 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9) 안덕현외, 「농업인력 확보 및 육성방안 연구」, 한국농업전문학교, 2001.

10) 이인학, 「농업인력육성을 위한 학교4-H회의 역할 제고 방안」, 미호중학교, 2002.

이와 같은 현상은 농업 취업인구 자료 <표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 예측되는 농업 인력구조는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특히, 젊은 연령층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청소년들의 예비 농업인력 확보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표 7> 연령별 농가인구

(단위: 천명)

구 분	농 가 인 구				
	'70	'80	'90	'00	'03
20세미만	7,768	4,914	2,104	721	554
20 ~ 49세	4,404	3,701	2,259	1,301	1,019
50 ~ 59세	1,107	1,074	1,111	676	580
60세이상	1,143	1,138	1,187	1,333	1,377

자 료 : 농림부(2004)

2. 청소년 예비 농업인력 양성의 문제점

가. 농업계 학교기관의 특성화 교육 미흡

최근 들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에서는 농업계 학교에 각종 지원과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수한 젊은 청소년 농업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각 학교 특성 및 지역적인 면을 감안해서 그에 맞는 농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 운영하여 특성화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현재 개설되고 있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정부 지원은 전국적으로 유사한 것들이 대부분이며, 따라서 청소년 농업인력 육성의 내용 수준이 보편적일 수밖에 없다.

나. 농업계 학교기관과 농업인력 양성관련 기관간 연계 부족

청소년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서는 현 농업계 학교와 지방 정부의 협조, 각 농업관련 기관간의 연계 등이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재 청소년 농업인력 양성은 이러한 측면에서 다른 부분에 비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학교 및 지역특성의 농업에 필요한 청소년 농업인력 육성 부족과 해당 지방정부 및 농업관련 기관과의 교

류 및 지원이 미흡하며, 농업인력 육성의 학교교육 체제와 사회교육 체제의 상호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 농업 교육훈련 교사의 전문성 부족

농업 교육훈련 교사는 전공과 관련된 내용과 더불어 효과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습 방법들을 연구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의 제약 및 한계로 인하여 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요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농업전문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농업계 학교들에서는 다양한 교사 - 학생간의 학습 방법 활용 능력이 미흡하며, 교사들의 자기개발 기회가 부족한 실정이다.

라. 농업계 학교기관의 교육여건 미흡

청소년 농업인력의 양성을 담당하는 많은 농업계 및 농업학교들은 농업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실험·실습 교육에 필요한 제반 시설과 기자재 등이 미흡하며, 또한 학급당 학생수가 많아 실질적인 농업교육이 힘든 상황이다.

3. 청소년 예비 농업인력 유입의 문제점

가. 후계농업인 선정의 문제점

농가인구의 노령화 현상 심화, 농촌임금 상승과 농촌 일손의 부족 문제 대두, 특히 청소년 농업인력 규모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정부는 정예 농업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능한 청장년을 후계농업인으로 선정하고 영농기반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¹¹⁾하기 위해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후계농업인 제도를 요약하면 다음 <표 8>와 같다.

그러나 후계농업인 육성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예비 농업인력 양성과 후계농업인 선발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¹²⁾

둘째, 선정된 후계농업인에 대해 1회적인 자금 지원으로 그치고, 전문적 기술·경영 교육과 체계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11) 안덕현외6명, 「농업인력 확보 및 육성방안 연구」, 한국농업전문대학, 2001.

12) 청소년 예비 농업인력 외에 그 밖의 해당 연령대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셋째, 젊고 유능한 농업 전공자를 후계농업인으로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후계농업인 선발하는 자자체 행정공무원들의 자의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

<표 8> 후계농업인 제도의 개요

구 분	내 용
목 적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적극 발굴·지도하여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경영개선 및 신규 영농창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영농 정착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유지에 기여
근거 법령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후계농업인의 육성)
설립 취지	·농촌인구의 급속한 감소 및 노령화·부녀화로 농업인력이 점차 감소하여 젊고 유능한 전문 후계농업인력 육성 필요
지원 대상	·신규후계농업인: 사업시행년도 1.1일 현재 40세미안인 자 중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와 특별·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시·군 농정 심의회 심의를 거쳐 후계농업인 육성대상자로 선발·확정한 자(단, 농정심의회가 없는 경우에는 시·군 농정심의회에 준하는 별도 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의) ·취농창업후계농업인: 사업시행년도 1.1일 현재 35세미안인 자 중 농업계 학교 졸업(졸업예정자 포함)직 후 영농 승계를 원하는 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 중인 자중 농촌 정착을 원하거나 농촌에 정착한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특별·광역 시장, 시장·군수가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후계농업인 육성대상자로 선발·확정한 자(단, 농정심의회가 없는 경우에는 시·군 농정 심의회에 준하는 별도 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의) 단, 영농승계라 함은 신청자가 정착하고 있거나 정착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부모 또는 형제의 영농기반을 상속 또는 임차 등의 형태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영농기반을 확보(계획 포함)하는 경우(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확인)을 말함(단, 후계농업인으로 기 선정된 자로부터의 영농승계 제외)
지원 규모	·신규후계농업인: 본인들의 영농설계에 따라 20~50백만원까지 차등 지원 (수도작: 30~50백만원, 축산분야: 20~30백만원, 기타: 20~50백만원) ·취농창업후계농업인: 본인들의 영농설계에 따라 30~60백만원까지 차등 지원 (수도작: 40~60백만원, 축산분야: 30~40백만원, 기타: 30~60백만원)
지원 조건	·용자조건 - 재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용자기간: 국고용자 100%, 5년거치 10년균분상환(15년) - 금리: 신규후계농업인자금 연리 5.0%, 취농창업후계농업인 연리4.0% ·용자 취급기관: 농협중앙회(경종 농업분야: 농협, 축산분야: 축협) ※ 용자취급기관은 용자금 지급 및 회수와 이자 징수에 관한 업무를 자금 지원 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일선조합으로 하여금 용자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사업 분야	·경종분야: 수도작, 원예(채소, 화훼 등),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축산분야: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나. 청소년 예비 농업인력을 위한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문제점

청소년 농업인력의 영농정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업계 학교를 졸업한 청소년 예비 농업인력에 대하여 병역특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력을 유입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산업기능요원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산업기능요원제는 청소년 예비 농업인력 유입이라는 측면에서 교육적 접근이라기보다는 유인적 접근 전략에 치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즉, 병역상 특례를 줌으로써 농업에 종사하기 위한 목적보다 군복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여겨질 우려가 있다.

둘째, 산업기능요원제는 청소년 예비 농업인력의 양성과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하다.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청소년 예비 농업인력을 충분히 수용할 정도의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셋째, 산업기능요원 기간동안 현장실습, 도제수업 등 훈련프로그램이 미흡하고, 산업기능요원에 편입 후 영농정착 준비를 하려고 하여도 자금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제4장 청소년 농업인력 육성의 효율적 방안

제1절 청소년 예비 농업인력의 확보 방안

1. 농업계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농업계 학교에 재학하면서 일정 수준이상의 학교 성적을 유지하고, 학교 졸업 후 영농에 종사할 의사를 보호자 및 보증인 연명으로 제출하는 학생을 선정하여 졸업 후 영농에 종사할 조건으로 학비 또는 생활비를 보조하기 위한 장학금 지원¹³⁾을 통한 청소년 예비 농업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학금 형태의 지원은 현재 몇몇 정부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 농업재단에서 시행중이나 이를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장학금 형태의 지원은 농업계 학생들이나 미래 농업계 진학 예정 학생들에게 농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해 농업기술을 보다 열심히 배우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계 고등학교에 성적이 안되거나 혹은 갈 곳이 없으니 농사일을 하겠다는 패배의식 없이, 학교 성적도 우수하고 장학금까지 받는 농업계 학생으로서 자신의 자긍심과 유능한 젊은 농업인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앞으로 영농 종사를 통해 본인의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다는 생각과 실천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2. 농업 유망직종 및 자격증 개발을 통한 확보

전반적인 농업관련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하여, 지식기반사회에서의 농업부문 유망직종 및 각종 농업관련 자격증을 개발하고 연구를 통해 예비 청소년 농업인력들을 확보하고 관심을 가지게 해야한다. 현재 농업 유망직종 및 관련 자격증이 미흡한 관계로, 각 농업계 학교들에서는 농업분야 진로교육에서 농업에 대한 중요성만 강조할 뿐, 농업관련 분야에 대해 구체적인 전망이 아닌 제한적으로 전망을 제시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 농업 청소년들을 위해 농업부문의 유망직종과 각종 자격증을 연구 개발과 이를 예비 청소년 농업인력들에게 충분히 홍보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책자, 인터넷, 혹은 학교교육

13) 서규선, 「농업전문인력 교육의 발전 방향」, 한국농업전문학교, 2002.

을 통해 충분히 전달하여, 농업관련에 대한 깊은 관심과 본인 스스로의 농업관련 일에 대한 동기부여나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주어 영농을 하겠다는 의지를 더욱 강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농업관련 자격증을 통해서도 영농에 필요한 자질함양과 도전정신 및 자신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3. 학교 4-H회 활성화

청소년들에게 농업과 농촌에 대한 애정과 동기를 유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청소년 예비농업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영농4-H인 학교 4-H회를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4-H회의 활동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각 학교 4-H회에 대한 지속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게 청소년 농업교양 프로그램 개발과 각 학교 지도 교사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통해 각종 농업관련 프로그램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재, 교구 및 제반시설을 지원하고 보급해야 한다. 또한 학교 4-H회는 그 활동내용에 있어 프로그램 목적과 맞는 성과를 내게 함과 더불어 그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회원에 속하지 않은 학생 농업인력들에게도 관심과 유도를 이끌게 하는 동시에 농업관련 부문에 대해 더욱 깊은 관심을 기울이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제2절 청소년 예비 농업인력의 양성 방안

1. 농업계 학교 특성화 통한 현장 경험교육 강화

농업계 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미래에 전문농업인 되자 꿈을 키우는 학생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 및 학교에 맞는 농업 특성화를 시발점으로 농업 현장 경험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농업에 대해 좀더 체계적인 교육과 자신감을 심어주어야 한다. 즉, 이들 청소년 예비농업 인력들이 각 학교의 농업 특성화를 바탕으로 한 수업 과정으로 농업 현장을 직접 경험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본인 스스로 농업 분야에서 어떤 일을 앞으로 해야 하는 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농업전문학교에서 2학기 때 전공 작목에 대해 실시하는 1년간의 농업 현장 경험교육은 많은 농업교육 기관이 수용할 필요가 있는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농업계 학교 특성화에 맞는 시설을 구비하거나 근처 농장을 현장 경험 장소로 제공한다면, 우리

청소년 예비농업 인력들은 이와 같은 현장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가능성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계기의 효과와 앞으로의 농업인 후계자 양성에 있어서도 전문 농업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2. 농업계 학교간과 농업인력 양성관련 기관의 연계 협력 증진

농업계 학교들 간의 연계와 농업인력 양성관련 기관간의 협력 및 지원 체제를 증진하여 청소년 예비 농업인력을 효율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우선 농업계 학교들은 각 학교의 농업 전문분야와 특성화를 바탕으로 상호 교류 및 학생들 간의 정보교환을 통해 혹은 소모임이나 공동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인 연계 형태로 서로간의 관련 농업분야에 대해 논의하고 알아 감으로서 본인들 스스로의 적극적인 모습을 이끌어 내야 한다.

또한 농업인력 양성관련 기관도 앞으로의 우리나라 농업발전 차원에서 요구되는 농업인력 양성을 위해서 농업계 학교에서 지속적인 지원체제 확립과 연계방안, 제반 여건 등을 충분히 마련하고 각 농업인력 양성관련 기관간의 역할 분담 및 협력 등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한다.

미국의 경우,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농업교육과 대학 수준에서의 농업교육을 연계시키는 Tech Program,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전이 프로그램(STOW) 등이 개발되어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등의 국가에서도 각 수준별 농업교육 기관간에 긴밀한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력의 양성을 주관하는 농림부 등의 정부기관과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간에도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학 수준에서의 교육기관간의 연계, 대학 교육기관과 농업관련 연구기관간의 연계 등 각 교육기관 및 관련기관간에 수평적·수직적으로 밀접한 교류와 연계를 통하여 농업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있다.¹⁴⁾

3. 농업 교육훈련 교사들의 전문성 강화와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농업인력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교육훈련과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전문성 강화와 새 농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

교사들의 농업관련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사 학습방법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교사 학습방법에 대해 연구

14) 정철영, 「21세기 농업인력 육성」, 서울대학교, 2002.

개발하고 활용해야 하며, 교사 나뉠대로의 자기 개발 및 농업현장 전문가를 강사로 활용하여 교사들 역시 교육을 받음으로서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농업구상을 구상하도록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일선 학교 교사들 이외에 농업 전문학자, 농촌진흥청 산하의 연구원과 지도관을 주기적으로 청소년 예비농업 인력들을 위해 강의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실제 현 농업의 상황과 실태, 전망 등을 알아봄으로서 학생들 스스로 농업에 관한 진로와 전략, 연구 등을 유도해야 한다.

제3절 청소년 예비 농업인력의 유입 방안

1. 취농창업 후계농업인과 산업기능요원제도의 개선 방안

농업인력 육성에는 크게 신규 후계농업인, 취농창업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으로 나누어진다. 특히, 앞으로의 청소년 농업인력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취농창업 후계농업인과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는 대상자 선정 시 애매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확립할 필요성과 선정기준이 영농기반에 두고 있어 앞으로 청소년 예비 농업인력 확보차원에서 이를 좀더 개선하여 전문적인 농업계 학생들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구조개편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날 농업이 기업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기존 부모의 영농기반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기에 영농의 규모와 선택, 발전적 농업경영에 제한되는 점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영농을 하고자 하는 우수한 청소년 농업인력들이 포부가 강하더라도 그에 따른 여건이 충분치 못할 경우 지원이나 농업을 시도조차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그에 따른 농업부분에서의 국가적 손실이 크기에 이를 좀더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그 예로 선발 기준에 있어 그동안의 농업에 관한 객관적인 교육성과 실적, 농업발전을 위한 본인의 열의, 기타 추천서 및 자질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선발 기준에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할 필요성이 있다.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에서는 병력상 특례를 줌으로써 농업에 종사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군복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여겨지는 것이 문제시되지만, 이를 좀더 체계적이고 구체화하여 산업기능요원 선발 시 영농기반 기준 이외에 자신의 농업발전을 위한 영농 포부와 상세한 영농계획, 또한 우수한 성적과 경험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선발하여 우수한 청소년 농업인력들에 대해 차별성이 없어야 하며, 또한 주기적으로 진행상황과 결과, 그 밖의 본인 스스로의 영

농계획을 토대로 연구실적 등을 종합하는 형태로 변형하여 복무 완료 후에는 정착을 유도할 수 있게끔 그에 따른 새로운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강구해야 한다.

2. 청소년들의 농업관련 벤처기업 창업지원

벤처농업은 ‘신기술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농업을 창출하여 틈새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경영형태의 농업’이라 할 수 있다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정의를 내린바 있다.

이 정의에서 핵심 내용은 새로운 아이디어, 고부가가치 농업, 모험적·도전 경영 형태로서 우리 청소년 예비농업 인력들에게는 좋은 동기유발과 농업인력 유입책으로서 좋은 방안이며, 최근 일반 각급 학교에서도 여러 형태의 벤처기업 창업 프로그램을 정부기관에서 지원하는 것처럼 농업부분에서도 좀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젊은 농업인력들을 위해 투자하고 우수한 농업인력들을 지속적으로 유입하고 육성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계 학교나 졸업생을 대상으로 농업관련 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을 농업에 대해 관심을 유도하고 청소년 나름대로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연구와 개발, 발전전략 등을 세우도록 함으로서 청소년 농업예비 인력들을 유입하는 것이다.

제5장 결 론

청소년 예비 농업인력 육성은 전 국민과 청소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단지 영농에 전업하려는 일부의 사람들만을 인재육성정책의 주요 중점으로 삼다보니 농업전반의 침체는 자연, 자원의 고갈로 이어져 청소년 예비 농업인력 육성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 농업은 그동안 산업화로 인한 도시로의 이농현상으로 농업인력의 급속한 감소와 노령화로 농업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킬 농업인들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정부의 농업정책 및 지원체계가 추진되어도 이를 따라갈 우수한 우리 농업인들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기에,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 농업발전을 시킬 우수한 농업인력들을 확보해 나아가야 하며, 특히 그 무엇보다도 미래의 청소년 예비 농업인력을 육성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농업인력의 육성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여 현재 청소년 예비 농업인력 육성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첫째, 청소년 예비 농업인력 확보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농업계 고등학교의 진학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학교수도 과거에 비해 그 수가 줄어든 상황이며 그 밖의 농업 전문대학이나 농학계 4년제 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둘째, 청소년 예비 농업인력 양성의 문제점으로, 농업계 학교기관의 특성화 미흡과 관련 기관간의 연계 부족, 교육여건의 미흡으로, 앞으로의 우리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인력 양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문제점이다.

셋째, 청소년 예비 농업인력 유입이라고 보는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 제도 자체에 그 기준과 선정에 있어 진정으로 우수한 농업인력 유입측면에서 모호한 면이 많다는 문제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통해 청소년 예비 농업인력의 효율적인 확보, 양성, 유입의 방안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농업계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 새로운 농업 유망직종 및 자격증 개발을 통해 자신들이 젊은 농업인으로서 자긍심과 앞으로 영농 종사를 하여 꿈과 희망을 가지게끔 하며, 학교(영농) 4-H회를 보다 활성화 시켜 청소년 예비 농업인력들에게 관심과 흥미를 지속 유지시켜 더욱 감소하고 있는 젊은 농업인력들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농업계 학교들에 대한 농업 특성화로 현장 경험교육을 강화시켜, 청소년들이 직접 농업 현장을 경험함으로써 본인들 스스로 많은 것을 느끼고, 앞으로 어떤 농업일을 해야 하는 가를 찾도록 도와주고, 미국의 경우처럼 지속적으로 농업 학교 간과 농업인력 양성관련 기관의 연계 협력을 통해 정보교환 및 소모임, 공동 연구를 통해 농업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또한, 농업교사들의 전문성과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청소년 예비 농업인력들에게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농업구상 및 교육을 시킬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청소년 예비 농업인력의 유입 방안으로, 현재 시행중인 농업인력 육성정책에서 취농창업 후계농업인과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에 대한 대상자 선정 시 앞으로 전문적인 농업계 학생들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구조개편 되어야 한다. 즉, 영농의 규모와 선택이 아닌 농업에 대한 객관적인 교육성과 실적, 농업발전을 위한 본인의 열의, 기타 추천서 및 자질들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그 능력이 충분하여도 제반 여건이 충분치 못한 청소년 예비 농업인들에게도 기회를 주면서 우수한 농업인력들을 유입 해야한다. 그리고 농업관련 벤처기업을 창업지원 하여 젊은 우리 청소년 농업인력들에게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농업경영과 새로운 농업분야의 연구개발을 하게끔 유도하여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농업인력들을 유입해야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 예비 농업인력 육성에 대해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효율적인 대안으로 농업인력의 확보, 양성, 유입이라는 세 측면을 토대로 제시하였다.

앞으로의 청소년 예비 농업인력 육성에 대해서는 어느 한 부분만을 따로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체 국민사회의 시각에서 모든 청소년 자원을 대상으로 농업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해야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위에서 제시한 현 청소년 예비 농업인력 육성의 효율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며 그에 따른 기본적이고 체계적인 틀을 확립한 후에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을 통해 새로운 방안을 연구하고 시행하여, 나아가서는 모든 국민,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농업에 대한 국가의 정책과 지원을 적극 추진해 미래의 우리 농업발전을 위한 우수한 예비 농업인력들을 육성하고 발굴해야 한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 >

- 김경덕, 「농업인력의 현황 분석과 중장기 수급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1998.
- 박문호외1명, 「농업인력육성사업 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 서규선, 「농업전문인력 교육의 발전 방향」, 한국농업전문학교, 2002.
- 안덕현외6명, 「농업인력 확보 및 육성방안 연구」, 한국농업전문학교, 2001.
- 오해섭, 「농촌청소년의 농업후계인력 육성지원 및 교육을 위한 정책 방향」, 서울대학교, 2002.
- 윤호섭, 「농업인력 육성의 현황과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1993.
- 이용환외5명, 「21세기 신지식농업인화 방안 및 교육·훈련 연구」, 서울대학교, 2000.
- 이용환외4명, 「지식기반 농업을 위한 농업인력 육성의 문제점 분석」, 한국농업교육학회, 2001.
- 이인호, 「농업인력육성을 위한 학교4-H회의 역할 제고 방안」, 미호중학교, 2002.
- 정명채외2명, 「농업전문인력의 확보와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1991.
- 정철영, 「21세기 농업인력 육성」, 서울대학교, 2002.
- 정철영, 「농업인력의 육성 실태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 1999.
- 최민호외1명, 「우리나라 영농후계인력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 1993.
- 허신행, 「우리 농촌 희망은 있다」, 범우사, 2000.

< 인터넷 자료 >

- 교육인적자원부(<http://www.moe.go.kr/>)
-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홈페이지(<http://agsearch.snu.ac.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ei.re.kr/>)
- 한국4-H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4-h.or.kr/>)